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린 파수꾼 디도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여호수아 1:7-8, 디도서 3:5

정윤돈 목사님

* **수1:7-8**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딤후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모든 사람이 오만까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가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절대목표를 향해 생명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앞으로 모델적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주년 기념일이다. 우리 교회의 생일주년이면서 추석주간이기도 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참사랑교회를 추석주간에 설립하게 하셨는지 생각했다. 여러분이 가정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그 이전에 나의 가정, 가문을 살려라. 어려운 전도와 쉬운 전도가 있다. 쉬운 전도는 노방전도와 학교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고, 어려운 전도는 가정과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이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오래 기다리고 참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화하신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직접 못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화되도록 하신다. 지금 참사랑교회가 제3성전이다. 1967년도에 김근숙 권사님이 미군용 군텐트를 치고 복을 치며 어려운 정착민을 위한 교회가 시작되었다. 88년도에 제2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제3성전을 주셨다. 이미 백 배, 천 배 복을 주셨다. 이제 제4성전, 제5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한다. 2030-2080시대에는 앞으로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천 배, 만 배 축복하실 것으로 믿는다. 후대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믿음 있게 충성되고 꾸준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다.

사람들 중에는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죽이는 이야기를 한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다르다. 비판적인 사고와 불신앙은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다. 머리가 똑똑하다보니 비판하는데 불신앙까지 넘어가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민족과 교회와 스승과 선배, 동료까지 죽인다.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 지키는 말

씀이 된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다.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따라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야기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제자로 만드는 메시지다. 예배에서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란다. 여호수아와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현장이든 살리는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했다.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이유있는 복종과 순종을 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법적으로는 수배자였다. 험기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도 했던 지도자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였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하는데 옆자리에서 목사님을 비판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친구가 되었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속이 악한 사람은 모든 게 악하게 보인다. 여호수아는 본질 중의 본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생활을 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발견했다. 그게 그리스도와 복음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는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모세가 못한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약에 등장한 디도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핍박자였고 악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격과 체질때문에 그레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현장을 디도에게 맡겼던 것이다. 디도서는 그레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다. 오래된 이상승배 지역에서 전도한 후에 많은 영적문제, 이상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디도를 보내고, 걱정되어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다. 그러나 디도는 힘들고 어려운 현장임에도 사도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그레테 섬의 사람들과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세우며 현장을 치유하고 부흥시킨 충성된 제자가 되었다. 많은 부부가 추석만 되면 싸우지만 그게 아니다. 축복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셨다. 힘들지만 그게 알 수 없는 지혜를 준다.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칭찬과 잔소리에 생명과 지혜가 담겨있다. 부모님과 단절하는 건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과 같다. 성령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줬다.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다. 특히 이 그레테 섬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다. 그레테 섬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영적문제도 많았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의 목회자로 파송한 이유는 디도만이 그 어려운 목회의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 먼저 그레테 섬 지역 사람들과 성도들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성격, 특성이 있다. 나라마다 국민성이 있고 지역마다 다르다.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한다. 목회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성격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1) 첫째로,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레테 섬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들이었다. 디도서 1장 10절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는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으로는 훌륭하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문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정죄하는 게 문제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지 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된다.

(2)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레테 섬에 있었다.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단들이었다. 디도서 1장 11절에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말한다.

(3) 또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레테 섬 출신의 한 철

학자 에페네디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우리는 악한 현장에서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악하고 나쁜 사람일수록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원하게 된다. 불신자들도 영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안다. 그러면 왜 그레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디도서 1장 15절에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기 때문이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악하고 추하다. 이게 현장의 모습이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살려야 한다. 현장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어두워 답답해서 그렇다. 그게 흑암이다. 또한 이게 그레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과 우리들의 모습이다.

(4) 다음은 그레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서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이 그레데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한 교인들은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위는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이러한 성도들은 강단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칫하면 우리도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겨우 구원받고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끝난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역사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란다.

2.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1) 사도 바울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중독치유를 위한 12단계를 보면 피해 입은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 한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먼저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적인 규모들 만들어 가는 것이다. 누가 먼저 되어야 할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리더자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지역을 치유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목회자 디도다. 먼저 가장과 목사님, 사장님이 잘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게서 절대목표가 있다.

(2) 복음적인 장로들을 세워 곳곳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심지어 자식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도 절대적인 목표를 말한다. 여러 가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식이 바르게 크기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교회에서도 반복된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3)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밀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늙은 남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젊은 남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종들은 흠치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4) 그리고 엄하게 책망도 하라고 권하고 있다. ① 디도서 1장 9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한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② 디도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

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참사랑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믿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잠언에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다.

(5)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레데와 같은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빛과 소금 같은 삶에 도전해야 할까? 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셨다. 누가 여러분을 법적으로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왕권이 중요하다. 신앙은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다. 예수님은 선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②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소중한 전도와 선교와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부르셨다. ③ 디도서 3장 5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④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처럼 성령을 풍성히 받는 게 중요하다. 구원을 받았지만 선한 일을 하려면 성령충만, 말씀충만을 받아야 한다. 항상 여러분은 서밋타임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넘어지면 다시 붙잡아라. 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7절을 함께 보겠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왕자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직장, 나라, 학교에 가셔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제자 디도는 지속적인 복음과 말씀사역을 통해서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

오늘은 7만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 어디를 갑니다. 거기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운 현장이라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디도처럼 선배지도자들보다 더 복음적이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추석명절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가족과 함께 누리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를 57년 동안 지키셨으니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여호수아와 디도처럼 이전보다 더 축복받는 믿음의 제자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